

>> 인쇄단체 · 기관 뉴스

▽ 인협, IGAS2011에 시찰단 파견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IGAS2011(International Graphics arts show)에 시찰단을 파견했다. 일본 인쇄기재단체협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73,554명이 내방했으며 최신 인쇄, 지공관련 기재 및 기술이 선보였다. 또한 세계적인 화두인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시대에 어떻게 프린트미디어의 가치를 창조하고 어떻게 지구환경을 보호 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이 함께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인협 시찰단에 참가한 단원들은 함께 전시회장을 둘러보면서 세계적인 조류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 인협, 부산국제관광전에 직지 홍보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4회 부산국제관광전(BITF 2011)에 54㎡의 규모로 참가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를 홍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주시의 지원으로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서 인협은 직지 영인본, 직지 제작과정 디오라마 및 홍보패널, 직지 홍보 리플렛 배포, 직지 금속활자 인쇄체험 등의 코너를 꾸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창조적 가치를 인정 받고 있으며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 동 정

- ▶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은 지난 9월 26일 호텔 P에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 ▶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 9월 23일 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 ▶ 남원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9월 17일 고양시 농협대학 강당 및 운동장에서 인쇄경영자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 ▶ 함정 전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9월 24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 ▶ 김현덕 경기도인쇄문화협회장은 지난 9월 23일 리젠시 뷔페1층에서 협회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 ▶ 윤형두 범우(주) 대표이사와 한승헌 범우출판문화재단 명예이사장은 지난 9월 23일 출판문화회관 4층에서 제21회 범우출판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 ▶ 이창의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오는 10월 7일 경기도 여주에서 2011 잡지인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한다.
- ▶ 김상래 성도GL/성도솔루션 대표는 오는 10월 8일 헤이리 공간퍼플에서 제10회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개최한다.
- ▶ 서상준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산악회장은 지난 9월 25일 제 142차 정기산행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산행은 충북 단양군에 있는 황정산이다.

◆ 부 음

- ▶ 최기환 마이애드 대표의 모친이 지난 9월 6일 별세했다.
- ▶ 강기평 (주)대성인쇄공사 대표이사의 빙모가 지난 8월 25일 별세했다.

>> 인쇄업체 및 관련업계 뉴스

▼ 캐논코리아, 국회발간실에 오세 공급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4월 '국회발간실 디지털인쇄기 교체 및 인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경쟁 입찰에 참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기술평가점수를 받아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국회 발간실 디지털인쇄기 교체 및 인쇄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국회에서 생산·발간하는 인쇄물을 인쇄하는 고속디지털인쇄기와 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동안 지속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관계자는 "국회 발간실의 일일 발간량 역시 1만 페이지 이상을 기록하므로 무엇보다 출력 시간을 최소화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속 디지털인쇄기와 컬러프린터의 교체가 시급했다. 생산·판매·관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발휘하기에 최적의 과제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국회발간실에 공급한 오세(Oce)의 디지털인쇄기인 VarioPrint6320 시리즈는 분당 314ipm(A4 양면 기준)을 출력할 수 있는 초고속 디지털인쇄기다.

▼ 캐논코리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2개 부문 수상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9월 2일 서울 양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신뢰기업) 대상' 및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2개 부문을 수상하였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나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2009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고용확대협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훨씬 웃도는 전 사원 중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으로부터 장애인 고용 성공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김천주 대표이사는 "기업의 모토인 '나눔경영'에 따라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물론, 장애사원들이 자신감과 독립심, 도전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화 촉

- ▶ 서경성 (주)서경문화 대표이사의 장남 현규군이 지난 9월 17일 호텔 프리마3층 그랜드볼룸에서 화촉을 밝혔다.
- ▶ 고성채 성림디엔피 대표의 장녀 유정양이 지난 9월 17일 사이닝스톤컨벤션 릴리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최공열 대광인쇄 대표의 장녀 진영양이 지난 9월 3일 서울컨벤션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이전

- ▶ 정민프린테크(대표 서병기)는 최근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38-1로 이전했다.
- ▶ 광동문화사(대표 김영배)는 최근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6-10 장양빌딩 1층(공장) 7층(사무실)으로 이전했다. 전화: (02) 2272-5484 팩스: (02) 2264-0262
- ▶ 카피애드(대표 정대용)는 최근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115-1 101호로 이전했다.
- ▶ 후솔(대표 김주호)은 최근 사무실과 전시장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306 남산센트럴자이 B06호로 이전했다.

◆ 변경

- ▶ (주)우진테크는 최근 대표이사를 이명순씨로 변경했다.



한국후지제록스, 풍자와 MOU 체결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8월 23일 무인출력솔루션 기업인 풍자(대표 정용주)와 국내 대학 시장에서 클라우드 프린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문서 출력 수요가 많은 대학 시장에 한국후지제록스의 최신 복합기 아베오스포트-IV C2270와 풍자의 문서키오스크(kiosk)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무인 출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풍자에서 운영하는 문서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자료를 대학내 곳곳에 설치된 무인 출력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출력할 수 있다. 출력 외에 복사, 스캔, 팩스 등의 작업도 가능하며, IC칩이 내장된 학생증, 현금,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문서 출력 수요가 많은 대학 시장에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출력이 가능한 무인 출력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MOU를 통해 대학 시장에서의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클라우드 프린팅 사업을 다른 시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풍자는 현재 한양대학교, 경기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전국 16개 대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후지제록스와의 MOU를 통해 향후 서비스 대상을 전국 34개 대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후지제록스, 사랑의 송편 만들기 봉사활동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추석을 보름 앞둔 지난 8월 27일 KOTRA(사장 홍석우)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 및 강원도청과 함께 장애인복지관 '사랑이 꽃피는 집'에서 사랑의 송편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사랑이 꽃피는 집'은 한국후지제록스의 직원 봉사단체인 한사랑회가 지난 2005년부터 후원해오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로 몸이 불편한 30여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우에는 야스아키 사장을 포함한 30여 명의 봉사자들은 사랑의 송편 만들기, 건강 박수 레크레이션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치며 '사랑이 꽃피는 집' 가족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우에는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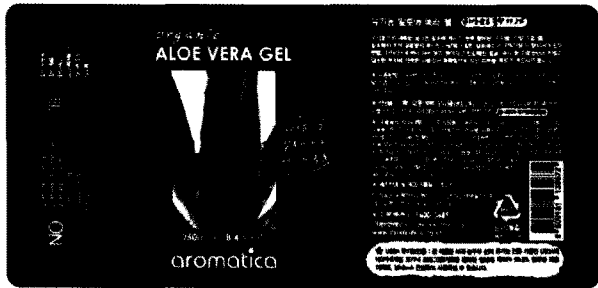
성진에드컴, 국제프로사진세미나서 스타북 전시



성진에드컴(대표 이정희)은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5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에 참가해 간편하게 편집 제작할 수 있는 스타북과 스타 캘린더를 선보였다. 간편함과 다양성을 내세운 스타북과 스타 캘린더는 홈페이지 회원가입만으로도 세계적인 TAOPIX 포토북 프로그램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스타북은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원하는 대로 쉽게 포토북과 캘린더를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집툴과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디자인 소스를 통하여 고품질의 포토북과 캘린더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포토북과 차별화된 점이다. 기본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 및 추가 가능하여 나만의 포토북과 캘린더로 편집이 가능하다. 자동 사진배열 기능으로 단 몇분 만에 쉽게 편집이 가능하여 고객의 짧은 납기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파일이동이 가능해 작업 장소에 있어 거의 제한이 없다.

아비즈·디비텍, HP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 수상

한국HP는 지난 9월 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회 아태지역 HP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 2011'에서 (주)아비즈(사진위)와 (주)디비텍(사진아래)이 각각 포토북 및 고급 화보집(High End Coffee Table Book) 부문에서 1위와 라벨 패키지 부문 2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HP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쇄 및 패키징 업계에서 HP 인디고 및 사이텍스 프레스를 사용해 뛰어난 성과 및 혁신을 달성한 업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올해는 상업인쇄 분야, 산업인쇄 분야, 사이텍스 부문 등 HP 인디고 및 사이텍스 프레스를 활용한 18개 부문, 총 446개의 작품이 심사를 위해 출품되었다.

(주)아비즈(대표 송창훈)는 HP 인디고 프레스 5500을 활용해 뛰어난 색감 및 인쇄품질, 창의성을 더한 DIY 형태의 포토북 디자인을 인정받아 포토북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아비즈는 고급 화보집 부문에서도 1위를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아비즈는 지속적인 신상품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2중 제본 기술 노하우 적용을 적용해 국내 최고의 고품질 포토북을 자랑한다.

아비즈 송창훈 대표는 "HP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 2년 연속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고객의 원하는 창의적이고 퀄리티 좋은 포토북 생산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작품을 출품한 (주)다비텍(대표 신기환)은 라벨 & 패키지 부문에 출품한 유기농 화장품 라벨로 출품작 모두 2위에 선정됐다. (주)다비텍의 아로마티카(aromatica) 유기농 화장품 라벨은 HP 인디고 4500 장비를 활용해 일관된 최상의 컬러 품질로 제품의 구매력을 높이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한 경제적 라벨 프린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HP 이미징프린팅 그룹 그래픽 솔루션 사업부를 총괄하는 김병수 상무는 HP는 "고객의 디지털 프린팅 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적인 프린팅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신도리코

아산공장 전 임직원 초청 추석맞이 만찬

(주)신도리코(대표이사 우석형)는 한가위를 맞아 지난 9월 8일 아산공장 전 임직원을 초청하는 만찬을 개최하여 생산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석식만찬에는 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은 물론 아산공장의 공장장부터 실습사원에 이르는 약 800명의 생산부문 전 직원이 참석하여 명절을 앞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만찬은 야외 잔디마당에서 바비큐와 호텔식 부페로 차려졌으며, 케이크 커팅과 직원들의 장기 자랑 무대도 마련되었다. 장기자랑에는 난타, 합창, 댄스, 코믹마술, 개그패러디 등 아산공장 직원들의 재치와 단결력이 돋보였다. 행사 마무리에는 전 직원들이 등글게 손을 잡고 함창을 하였고, 격려와 정담이 오가는 악수를 나누었다.

우석형 회장은 석식만찬 기념사에서 "아산공장이 금년 신규 생산라인의 구축과 가동이 많았고, 향후 수출을 앞두고 있는 연구개발 및 생산 테마가 다수 진행중인 만큼 매우 분주했음에도 생산부문 전 임직원이 단합하여 업무에 힘써준 덕분에 연구개발, 영업, 해외사업 부문이 약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생산부문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가족 같은 기업문화와 내 집 같은 근무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동양인크, KIPES2011 참가



(주)동양인크(대표이사 최대광)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양시 컨텍스에서 열리는 KIPES2011에 참가했다.

동양인크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동 및 반자동 써멀 CTP 출력기, 블랭킷, CTP 등의 인쇄재료와 최근 개발한 LED-CURE UV 잉크 및 Comax, MIDAS, ECO-MAX 등의 잉크제품을 선보였다.

동양인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신제품, 신기술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국제적으로 한국 인쇄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KIPES 전시회는 국내외의 우수한 인쇄관련 기자재를 전시하고 소개하는 자리로 다양한 업체가 참가하여 기술정보교류를 통한 인쇄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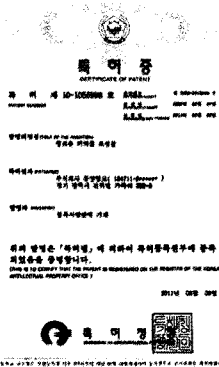
▼ 디자인코리아2011, 21일부터 열려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술의 발전속에서 미래 디자인 환경을 얘기하는 디자인코리아 2011이 오는 2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시대와 밀착된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이번 행사에는 전시, 포럼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스마트디자인'이라는 최고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를 나누게 된다. 전시회를 주관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은 이번 행사는 기존의 딱딱하며 일방적인 강의 형식의 컨퍼런스가 아닌,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가 시작되는 21일은 디자인트렌드데일로 지정하며 니콜린 반엔터 네덜란드 화이트렌즈 대표의 미래 디자인트렌드 전망, 이순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겸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센터장의 거시적 맥락의 미래 디자인 가치 탐색, 박성희 LG하우시스 디자인센터장의 스마트시대의 디자인트렌드 등으로 진행되며 22일은 디자인코리아이티비데일로 지정되어 로저 볼 홍콩폴리텍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의 아시아인을 위한 스마트디자인 툴, 김영석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겸 미래로봇 디자인연구센터장의 디자인 진화와 창의적 컨버전스 '로봇디자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별세미나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디자인산업발전포럼-해외 디자인 수출 지원 사업도 열린다. 23일에 열리는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 제품관련 뉴스

▼ 동양잉크, 친환경 잉크 ECO-MAX 특허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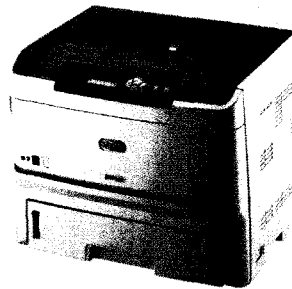


(주)동양잉크(대표이사 최대광)가 최근 개발한 친환경 무용제 잉크 에코맥스가 특허를 취득했다.

에코맥스는 지난 2009년 업계최초로 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이번에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하였다. 본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

물(VOCs)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잉크의 인쇄적성인 광택, 건조성, 내수성 등을 충족하고 사용자에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에서의 안정성을 부여한 고품질 Non-Voc's(무용제) 잉크의 특성을 지녔다. 또한 에코맥스는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어 있어 식품 및 장난감용 포장 인쇄에 적합하며 RoHS, PoHS, PVC가소제 등 전기전자 재료 포장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며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이다. 동양잉크 관계자는 "이번 특허 취득으로 친환경 잉크 기술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양잉크는 친환경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도리코, 초고속 A3 프린터 'B600' 시리즈 출시



신도리코(대표이사 우석형)는 지난 8월 24일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빠른 속도의 A3 레이저 프린터 'B600 시리즈(B600n/601dn/605n/605dn/606dn/606dtn)' 6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빠른 출력 속도와 우수한 내구성, 경제성이 특징이다. 각 제품은 분당 35매, 40매의 초고속 출력 속도를 자랑하고 고속 출력 시에도 안정된 인쇄 품질을 지원해 대용량 출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A6부터 A3에 이르는 용지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으며, 200g/m²의 무거운 용지도 걸림 없이 인쇄할 수 있어 기업의 다양한 출력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합리적인 유지비용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여준다. 6천매까지 출력가능한 초기장착토너와 1만5천매 대용량 토너를 장착하면 유지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B600의 5종은 양면인쇄기능을 지원해 용지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강한 내구성과 콤팩트한 사이즈로 사업장의 업무 효율과 공간 효율을 동시에 높여준다.

신도리코는 A3 레이저 프린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고객이 고품질, 고속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주목하고 급변 신제품 라인으로 시장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로 대용량 출력 업무를 필요로 하는 사무실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멀티 기능의 복합기 라인업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고속 출력 등 충실한 기본기능을 갖춘 레이저 프린터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리코 김성웅 이사는 "신도리코는 급변하는 오피스 환경과 기업의 다양한 사업 형태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A3 레이저 복합기/프린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구축한 풀라인업으로 기업용 시장의 우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후지제록스, 친환경 흑백 복합기 3종 출시
FUJI XEROX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에너지 절약 기능을 강화한 친환경 흑백 복합기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지난 9월 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흑백 복합기는 도큐멘터-IV 3065/3060/2060 3종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다양한 친환경 기능과 높은 생산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1.56 kWh(킬로와트시)이며, 절전 모드에서의 전력 소비는 2W(와트) 이하이다. 또한 저전력 고효율의 LED(발광 다이오드)를 스캐너의 광원으로 사용해 전력 소비를 줄인 것은 물론, 첫 장 복사 속도를 4.1초 이하로 줄였다. 이는 동급 모델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에너지 소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에코 프린팅' 기능 또한 추가됐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문서 출력 형태에 대한 친환경 수준을 모니터에 나뭇잎 그림으로 표시해줌으로써 무분별한 출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단면 출력의 경우 나뭇잎 하나, 양면 출력 및 토너 절약 모드 사용의 경우에는 나뭇잎 두 개 등 친환경 수준을 다섯 단계로 구분해 표시해준다.

이 제품의 분당 최대 출력 속도는 35매이며, 흑백 복합기이지만 컬러 문서 스캔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스캔 속도는 분당 55매이며, 스캔한 파일은 PDF, 이미지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 PC 또는 USB에 바로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송신할 수 있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들처럼 단순히 저전력 기능만을 탑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됐다"며 "흑백 문서의 출력이 많은 사무실에서 이 제품을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을 통한 비용절감 및 업무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후지제록스, '솔루션 페어 2011' 개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9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6개 도시를 순회하며 다양한 문서관리 솔루션과 최신 제품들을 선보인 '솔루션 페어 2011'을 진행했다.

9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2일 부산, 5일 대구, 6일 광주, 7일 평창, 8일 대전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후지제록스의 고객사 및 파트너사 등 총 3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솔루션 페어 2011에서 전자문서 공유, 팩스·스캔 관리, 사무기기 모니터링 등을 주제로 한 개별 세미나를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이 솔루션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올해 출시된 복합기 신제품들도 함께 전시됐다.

우에노 야사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급변하고 있는 IT 환경에 발맞추어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이번 솔루션 페어를 통해 기업의 오피스 환경을 보다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으로 바꿔줄 최신 솔루션과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HP, 초소형 컬러 레이저 복합기 출시



한국HP(대표 함기호)는 지난 9월 1일 HP 컬러 레이저 라인 중 가장 작은 크기를 자랑하는 '컬러 레이저 프로 100 MFP 복합기 시리즈'를 출시하고 개인 및 소규모 사무실에 까지 출력 시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컬러 레이저 복합기 제품 2종(HP 레이저 프로 100 컬러 MFP M175a/M175nw)은 컴팩트한 사이즈(441×480×441mm)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HP 컬러스피어 토너를 장착해 생생한 컬러감과 선명한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HP 컬러스피어 토너는 기존 제품 대비 39%까지 컬러범위를 확대해 뛰어난 광택 처리 및 업무용 사진 등의 고품상도 문서 출력이 가능하다.

컬러 레이저 프로 100 MFP 복합기 시리즈는 흑백 최고 16ppm, 컬러 4ppm속도를 자랑하며, 흑백 텍스트는 HP 모노 레이저 프린터와 동일한 페이지당 비용으로 경제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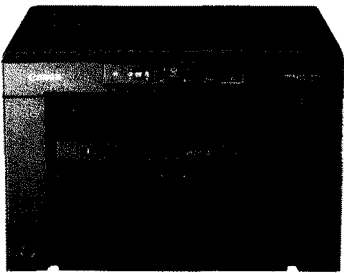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제품 설치 시 드라이버 CD 없이 USB 케이블로 프린터를 설치하는 HP 스마트 인스톨(Smart Install) 기능으로 손쉽게 제품을 설치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설정도 마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P e프린트(ePrint) 솔루션을 통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HP 복합기로 이메일을 보내 실시간으로 출력물을 전송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한국HP 이미징프린팅 사업부를 총괄하는 임진환 부사장은 “사이즈 및 에너지 효율성이 강화된 M175시리즈를 출시함에 따라 출력 니즈가 있는 개인 및 소규모 사무실까지 출력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논코리아

초소형 레이저 복합기 'MF3010' 출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9월 7일 심플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초소형 레이저 복합기 'MF3010'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MF3010은 37.2cm X 28.7cm의 국내 초소형 사이즈(점유면적)로, 편의성을 높인 유저 인터페이스(UI), 인쇄 복사 스캔 등이 가능한 '3 in 1' 제품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 및 제조된 초소형 'Made in Korea' 레이저 복합기이다.

엔트리 복합기 사용자를 타겟으로 한 이번 신제품은 편리한 디지털 복사 기능이 탑재되어, 첫장 출력 속도 7.8초, 첫장 복사 속도가 12초로 빠른 점이 장점이다. 또한 슬립모드시 1.4W, TEC(평균소비전력)가 0.6kwh로 에너지 효율화와 데스크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심플하면서도 유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관계자는 “신제품 MF3010은 엔트리 레이저 복합기 사용자를 위해 심플한 디자인은 물론 유저 인터페이스(UI)가 간단해 고객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라며 “심플한 조작부로 신분증 등 카드의 양면을 간단히 복사할 수 있고, 다양한 사용자 설정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션, 2011년 IGAS 참관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2011 IGAS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성도GL/성도솔루션의 참관단은 'The Future of the Print Media'라는 주제로 진행된 IGAS에서 차세대 인쇄를 위한 다양한 신제품들이 선을 보인 가운데 앞으로의 새로운 인쇄 흐름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FUJIFILM의 부스에서는 'I Vision Wing'이라는 슬로건 아래 차세대 Generation 잉크젯 디지털 프레스, 젯 프레스 720, 와이드 포맷 UV 잉크젯 프레스, Acuity Advance 와 Acuity LED 1600을 선보여 호응을 받았다. 또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Next Generation Hybrid Workflow System, 후지필름 워크플로 XMF를 통한 시연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은 이번 전시 참관을 통해 새로이 발전된 기술들을 토대로 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래 대표이사, FUJIFILM 글로벌 미팅서 발표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9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1 FUJIFILM 글로벌 미팅에서 김상래 대표이사를 발표자로 한 성도GL/성도솔루션과 한국의 인쇄시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에 성도GL/성도솔루션의 경영 비전 및 문화경영과 한국의 인쇄시장에 대한 현황과 정보, 자부심을 전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국의 참석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이번 김상래 대표이사의 발표를 통하여 단순한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한국 인쇄 산업의 새로운 시도를 진행한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와 채널을 통해 우리의 인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진애드컴, 제6회 서울인쇄대상 동상과 입선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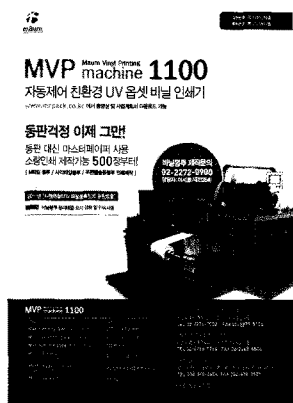
(주)성진애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지난 9월 15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6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에서 4개 도시를 테마로 한 포토앨범 'CITY STORY'로 동상을,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신주쿠 공원에서 개최되었던 '동일본대지진복구지원을 위한 한일자선한마당'의 행사 모습을 담은 사진집으로 입선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상을 수상한 'CITY STORY' 포토앨범과 입선 수상한 '동일본대지진복구지원을 위한 한일자선한마당' 포토북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만으로 포토북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편집 후 주문할 수 있는 스타북 프로그램으로 제작됐으며 사진만 있으면 간편하게 포토북 편집이 가능하고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포토북 편집이 가능한 솔루션이다. 스타북은 자기만의 맞춤형 캘린더를 디자인,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65일 언제든 기념일을 정해서 월을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캘린더로 소량제작 주문이 가능하다.

▼ 마음커뮤니케이션 기술혁신대전에서 지경부장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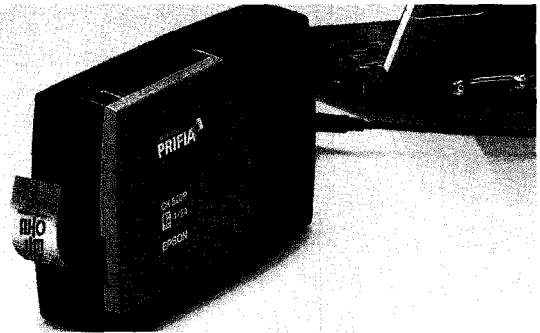
(주)마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박진만)은 최근 열린 제 12회 기술혁신대전에서 MVP 1100 친환경 자동제어 오프셋 비닐인쇄기계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마음커뮤니케이션은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제품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인쇄 문화와

비닐 봉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MVP1100을 개발했으며 내년까지 전국 14개 지자체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종량제가 전면 도입되면 MVP1100 에코 비닐인쇄기에서 만든 생분해성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커뮤니케이션의 박진만 대표는 "제품의 용도와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패키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제품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우리회사의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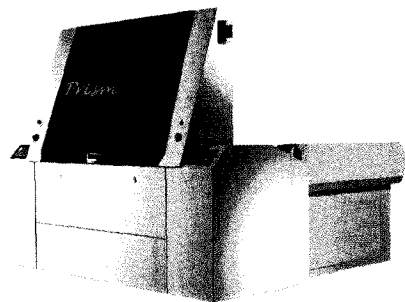
▼ 한국엡손, 주소변경 전용 라벨프린터 OK520P 출시



(주)한국엡손(대표이사 구로다 타카시)은 라벨 인쇄 전용 라벨프린터 OK520P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OK520P에는 행정안전부 전산팀과 (주)한국엡손 전산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주소변경 인쇄 전용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어 정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증에 주소변경 내용을 수기 기재할 필요없이, OK520P로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주소라벨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주소변경 전용 라벨라이터 OK520P는 자동커팅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주민등록증 사이즈에 알맞게 자동으로 커팅되어 출력되고, 스티커 형태의 라벨로 인쇄되기 때문에 풀·가위가 전혀 필요 없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특히 주소 변경 라벨 전용으로 별도 출시한 엡손 라벨테이프 ST9KG는 후면에 하프커팅이 돼 있어 라벨을 분리하기용이하다. OK520P는 주소변경 라벨뿐만 아니라 엡손 라벨라이터 OK500P용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면 문서파일, 비품 및 사무용품 정리장дон, 각종 안내 문구, 네이밍 스티커 등 일반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대정인터내셔널 충무로소재 SD글로벌에 UV CTP 프리즘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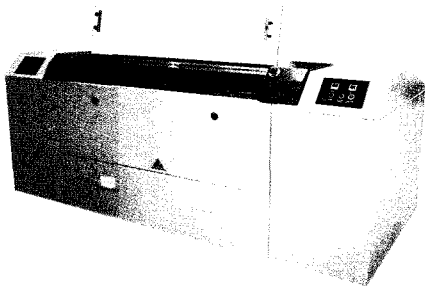
(주)대정인터내셔널(대표이사 송갑선)은 지난 9월 26일 UV CTP 시스템 프리즘 세트를 필동에 위치한 기획 인쇄납품 전문 업체인 SD글로벌(대표 한규선)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SD글로벌은 경쟁력 확보와 원가 절감 등 어려운 시장경쟁에 만족을 줄 수 있는 '프리즘'을 선택한 것에 크게 만족하며, 프리즘의 생산력과 기술력에 성공적인 인쇄제작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비즈니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품된 프리즘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고속생산 및 안정성으로 128채널의 기술로 시간당 2540dpi, 40장의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제품이며 주변장비 및 판재 현상기도 전도를 경시보충이 가능한 고가의 최신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대정인쇄내셔널은 프리즘 UV CTP 총판으로서 안정적인 장비 공급과 신속한 A/S 및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CMS 관련 G7 엑스퍼트 및 UGRA 자격을 보유한 최상의 토탈 솔루션 업체이다. 대정인쇄내셔널은 고객만족에 기여하고 가격적인 부담을 낮춰 리스 은행 저리 할부 금융 등 다양한 판매조건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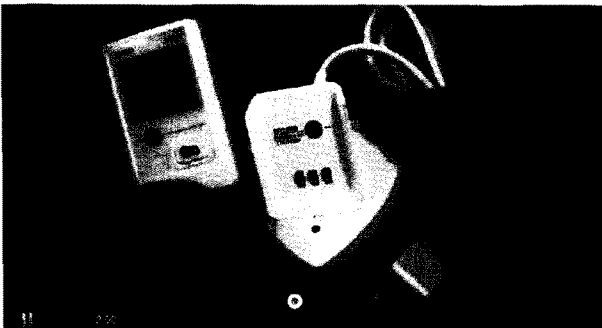
▼ 대정인쇄내셔널 프리즘-E 탄생기념 파격가 한정판매



(주)대정인쇄내셔널(대표이사 송갑선)은 지난 9월 28일 국제인쇄 산업전에서 자사 프리즘 제품을 출품하면서 프리즘-E 출시기념으로 파격가 한정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10월 한달동안 진행되는 파격가 한정판매는 프리즘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가가 한국인쇄 장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kippess 전시회를 시작으로 10월 한달간 10대 한정으로 시행되며 행사종료 후 가격은 기존가격으로 환원된다. 프리즘 이코노미 세미오토는 반자동장비로 기본 64채널로 시간당 2540dpi, 24장의 생산력을 가졌다. 회사측은 고가의 장비 가격으로 구입을 망설였던 필름 출력기 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테스토코리아, 데이터로거 동영상 매뉴얼 제작



테스토코리아(지사장 이명식)는 최근 책자 매뉴얼보다 더 쉽게 제품을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자료모음의 소프트웨어다운로드에 들어가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베이스 버전5>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동영상 매뉴얼은 소프트웨어 내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면 즉시 볼 수 있다. 동영상 매뉴얼에서는 구성품 소개와 사용방법 안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법 및 측정 진행과정을 직접 보여주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테스토 코리아 관계자는 “책자 매뉴얼 사용을 힘들어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다”며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을 생산하고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오키, 무상보증 1년 연장

한국오키시스템즈(대표 유동준)는 9월 한달 동안 C300과 C500 시리즈 제품을 구입한 고객 전원에게 무상 사후관리(AS) 1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을맞이 고객만족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이벤트는 오키의 A4 컬러프린터 제품군인 C310dn, C330dn, C510dn, C530dn 모두 네 기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제품군은 네트워크 지원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양면인쇄 기능과 다양한 용지 처리로 최상의 업무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코모드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오태수 영업/마케팅 총괄 본부장은 “신학과와 전통적으로 IT 제품 수요가 많은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을 맞아 새로 프린터 구입을 계획하는 고객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는 오키케어 서비스를 통해, 오키의 뛰어난 인쇄품질을 고장이나 유지보수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니콘이미징코리아

하반기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 8종 발표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지난 8월 24일 Full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콤팩트 카메라 COOLPIX S8200을 비롯해 2011년 하반기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 8종을 전세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제품은 COOLPIX S8200이 외에도

COOLPIX S6200, COOLPIX S6150, COOLPIX S4150, COOLPIX

S100, COOLPIX S1200pj, COOLPIX P7100, COOLPIX AW100s 등 모두 8종이다.

COOLPIX S8200은 7.62cm(3형) 크기의 92만 화소 TFT모니터를 통해 스테레오 음성을 포함한 Full HD동영상을 촬영 기능을 지원하는 콤팩트 카메라이다.

14배줌 NIKKOR(니코르) 렌즈를 탑재해, 광각 25mm부터 최대 350mm 상당의 화각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이면 조사형 CMOS 이미지 센서와 자동 연사 기술을 채용한 장면 모드를 탑재해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촬영이 가능하며 고감도에서도 노이즈를 억제한 고화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모델이다.

니콘이미징코리아 우메바야시 후지오 대표는 “이번에 선보이는 COOLPIX 신제품 8종은 카메라 사용자들이 손쉽게 고화질의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과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카메라다”라며 “다양한 카메라 사용자들이 2011년에도 COOLPIX 신제품과 함께 사진 촬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니콘이미징코리아

DSLR D7000 'EISA 어워드 2011' 수상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지난 8월 25일 자사의 보급형 DSLR D7000이 유럽을 대표하는 영상 및 음향관련 시상식인 'EISA (European Imaging and Sound

Association)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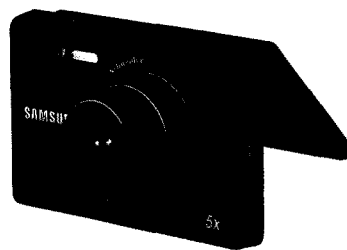
EISA 어워드는 유럽 19개국, 50여 개의 전문지 대표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제품의 기술 디자인 혁신성 등을 평가하여 부문별 최고 제품을 선정하는 상이다. D7000이 수상한 분야는 '유러피언 어드밴스드 SLR 카메라 2011-2012' 부문이다.

D7000은 화상 처리 엔진 'EXPEED2(엑스피드2)'를 비롯해 Full HD급 화질로 최대 20분까지 촬영 가능한 동영상 기능, 최대 ISO 25600까지 증감이 가능한 고감도 성능, 시야율 약 100%의 뷰파인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ISA측은 타사 제품에 비해 높은 방진방적을 실현했으며 마그네슘 합금 바디(상면, 후면 커버), 셔터 내구성 등 높은 완성도와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점을 D7000의 선정 이유로 밝혔다.

니콘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동급 가격대 기종에서 볼 수 없었던 고성능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하는 등 D7000의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 층을 만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미러팝 출시



삼성전자가 신개념의 콤팩트 카메라 '미러팝(모델명 :MV800)'을 출시했다. '미러팝'은 180도 회전하는 3.0" 대형 Flip-out 터치 스크린을 적용하여 촬영환경에 구애받

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다.

더욱 향상된 '스마트 터치 3.0'과 '스마트 터치 3.0'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일반 사용자들도 전문가에 버금가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 터치 3.0'은 기존 메뉴 아이콘들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으며, 삭제나 이동이 자유로워 사용하기 편리하다. 특히, 카메라의 Home 배경화면을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기본 제공되는 배경화면 중 어느 것으로도 구성할 수 있어, 나만의 카메라를 소유하고 싶은 소비자 욕구도 충족시켜준다.

'미러팝'은 1620만 고화소 CCD에 26mm 광각 5배줌 슈나이더 렌즈를 적용하였으며, 감도는 ISO 3200까지 지원한다.

광학식 OIS(Optical Image Stabilization)와 삼성만의 독자 기술인 DIS(Digital Image Stabilization)를 동시에 적용한 Dual IS 기능으로 사용자의 손떨림 현상을 줄여 주고 실내 촬영시 흔들림 없는 선명한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Corel Painter 12 출시



코렐코리아(지사장 김준오)는 지난 9월 19일 코렐 페인터(Corel Painter)12가 한국에 공식 출시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코렐 페인터12는 매킨토시 및 윈도우 모두 지원되며 두 플랫폼에서 최대 5배 빨라진 브러시 속도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한다.

빈 캔버스에서 창작하거나 좋아하는 사진에 그림 효과를 적용할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실제 수채화, 실제 젖은 오일 기능 등의 브러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코렐 페인터12는 현대적 미술 도구로 실제 세계의 미디어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놀라운 디자인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여 미술적 자유를 더욱 높여준다. 새로운 만화경 또는 만다라 페인팅은 브러시 스트로크를 3~12개 평면에서 컬러풀한 형태 또는 블렌드의 균형된 스펙트럼으로 변환해준다. 새로운 거울 페인팅은 평면을 수직 및 수

평으로 미리량하여 자동 대칭을 빠르게 구현한다. 또한 거울 배치를 이동하거나 회전하여 탁월하고 독특한 모양의 표현이 가능하다.

Corel Painter 12는 새롭게 설계된 사용자 정의성이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여 창의적 워크플로에 원활히 통합되어 사용자의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켜 준다.

▼ **다젠, New Hi·Fi JET 신제품 발표회**

㈜다젠(대표이사 이길현)은 오는 10월 25일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실사 출력기 베스트 모델인 Hi·Fi JET PROII의 신 모델을 비롯해 소프트 사이너지 및 칩장구 날염을 위한 3.3m 광폭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Teleios Grande(모델명: d.gen 3333TX) 등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젠 이길현 대표는 "10년 전인 2002년 10년을 내다보고 개발한 Hi·FiJET PROII는 출시 이래 최고의 품질과 A/S로 1만여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오늘 또 다른 10년을 위해 New Hi·Fi JET 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제품 Teleios Grande를 설명하면서 "d.gen 3333TX는 창립 33주년과 Teleios Grande의 최대 출력 폭 3.3m를 합성한 매우 의미 있는 이름이며 다젠 독자적인 프린트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창립 33주년에 맞춰 전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프린터 제조 기술을 보유한 회사 중에 하나로 새로이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다젠, 장폭 3.3미터 DTP프린터 발표**

㈜다젠(대표 이길현)은 지난 9월 18일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Teleios series 의 최상급 모델인 3.3 장폭 DTP 프린터 "Teleios Grande", model d.gen 3333TX을 발표했다. 다젠의 이길현 사장은 'd.gen 3333TX'라는 모델명은 창립 33주년과 Teleios Grande의 폭 3.3m 를 합성한 의미 있는 이름이며, d.gen 3333TX 는 다젠의 독자적인 프린트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다젠은 창립 33주년 기념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프린터 제조 기술을 보유한 회사 중에 하나로 새로이 거듭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Teleios Grande는 disperse dye ink 또는 textile pigment ink 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soft-signage 분야뿐 아니라, 칩장구류 등을 위한 면직물 중심의 텍스타일 제작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Teleios Grande는 올 인원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이며, 24 시간 365 일 연속 작동에 적합하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었다. Teleios Grande 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ITMA 2011을 시작으로, Dusseldorf Viscom 2011, Viscom Milan 2011, 서울 KOSIGN 2011 등을 통하여 전 세계 시장에 소개될 예정이다.

» **출판 및 관련업계 뉴스**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과 출판계의 상호 발전과 협력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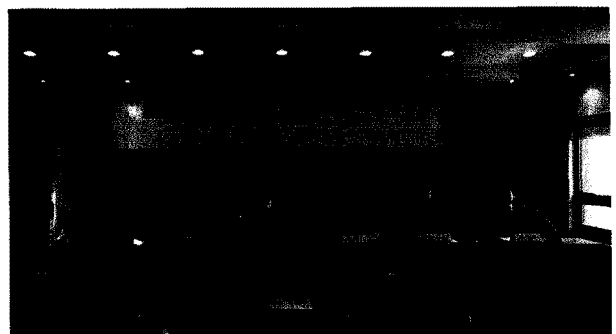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은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도서관과 출판계의 상호발전과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기태 교수(세명대학교)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표정훈 출판평론가의 '최근 우리 출판계 동향과 전망' 발표를 시작으로 객철완 교수의 '납본제도 현황과 발전', 최성구 출판유통진흥원 기획팀장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 운영 활성화: 전자출판물, 정부간행물 ISBN 부여 중심으로', 오혜영 국가서지정보센터추진단 사무관의 '출판시도서목록(CIP)제도 운영 현황과 신청안내'에 대한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진영 관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는 105년 종이발명이후 1900여년간 기록을 담당해 왔던 종이책 중심의 출판환경이 디지털 출판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되어 감에 따라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변화하는 기록 환경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기록 환경에 대처하여 출판계 및 도서관계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보사회에서의 출판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출협, 출판 판면권 제도 도입의 세미나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는 지난 9월 6일 출협 강당에서 출

판 판면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판면권이란 저작물의 인쇄배열(typographical arrangement)이나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한 권리로서, 권리가 미치는 대상은 출판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면(쪽, 페이지)의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layout)이나 일반적인 외관 등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출판 판면권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책임연구를 맡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이상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 팀장, 박영를 커뮤니케이션북스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출판 판면권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대희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영국,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판면권을 도입했다. 우리도 판면권 입법안을 통해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형두 회장은 "여전히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한·EU FTA 발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는 등 국내외 출판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판면권은 출판자식문화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출판계가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핵심 과제다. 판면권은 저작권과 함께 출판인의 중요한 권리다"라며 "앞으로 출협은 여러 출판 단체와 협력하고, 정부부서와도 진지하게 협의해 출판 판면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잡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출협, 2011 모범장서가 공모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는 '2011 모범장서가' 선정과 관련해 오는 10월 14일까지 장서가 후보자를 공모한다. 2천여 권 이상의 도서를 소장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후보자 중 총 5명을 선정해 대한출판문화협회장상(1명) 및 10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상(1명) 및 10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장려상(3명) 및 5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전·현직 대학 및 전문대학 교직원, 작가, 종교단체의 임원급 인사, 선대의 장서를 보관형식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 잡지나 도서형식을 갖추지 않은 인쇄물 또는 제본물은 제외된다.

선정방법은 서류 심사 후 직원 또는 심사위원이 현지 출장으로 실사를 확인하며,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선정된다. 선정 직후 12월 초(예정)에 개별통지 및 협회 홈페이지(www.kpa21.or.kr)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애서가 및 독서인 찾기 운동인 모범장서가 선정은 책 읽는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범국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1964년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시상 제도로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지난 2007년 새롭게 복원됐다.

문의_070-7126-4734

잡지협회, 잡지발전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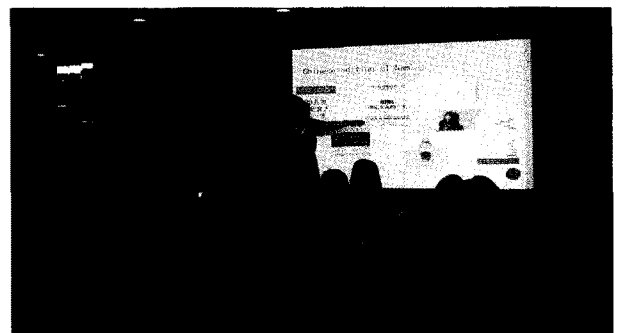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9월 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회원 및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1 잡지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속에서의 잡지산업'이라는 대주제에 박광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 '문화산업정책의 방향과 잡지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법무법인 송현 윤용근 변호사가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저작권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이창의 회장은 "국가 문화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잡지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최근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는 잡지 저작권 분쟁 대비를 위해 저작권에 관한 이해를 증

한국출판인회의, 아시아 공개포럼 개최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고영은)는 지난 9월 21일 오후 2시30분 서교 호텔 2층 하모니룸에서 '한류시대의 출판: 도전과 기회'라는 내용으로 2011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아시아 각국 출판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pooneh nefaei kharghani sabet(이란), yalan wang(중국) phil chien(대만) nguyen thanhnam(베트남) 씨가 각각 발표했다.

포럼이후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아시아 각국의 편집자들과 국내 출판인들이 함께 하는 친교의 자리도 마련됐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한글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며, 심사결과 발표는 10월 13일이다. 한글을 활용한 유·무형의 문화상품을 주제로 완성품(시제품 포함), 렌더링(컨셉 그래픽), 아이디어부분으로 나뉜다. 완성품과 렌더링은 상품성 및 양산성을 고려한 공예품이나 디자인 상품(인테리어 소품, 패션, 놀이용품, 교육상품군, 기념품 등 소재, 재료, 품목의 제한이 없음)이며, 아이디어 부문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문화기획이다.

접수는 직접방문이나 우편 또는 택배접수가 가능하며, 아이디어 부문은 온라인 접수다. 수상작품의 실물전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종대왕기념관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류 확산으로 우리문화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자랑인 한글을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동적인 문화상품 개발이 이번 공모전에 목적이다.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_ (02)969-8851, sejong@sejongkorea.org

▼ 한국잡지협회, 세계잡지총회 참가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도잡지협회가 주최하는 제 38차 FIPP 세계 잡지 총회에 참가한다.

제38차 FIPP 세계 잡지 총회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달라 캠핑스키 구루가온 호텔'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글로벌 잡지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2012년 9월경 서울에서 치뤄질 '제 3회 FIPP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매거진 미디어 컨퍼런스'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홍보를 위한 국제적 행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의 수도인 델리 지역의 주요도시중 하나인 '구루가온'은 아 웃소싱과 해안가 서비스업으로 유명하며, 주요 산업은 IT 산업과 자동차 제조업이다. 학교, 도로, 주거, 의료 시설 등과 관련해 최상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보림출판사, 그림책 BIB상 1, 2위 휩쓸어

세계 3대 그림책 상으로 유명한 BIB상을 우리나라의 보림출판사가 수상했다.

보림출판사의 그림책 '달려 토토' (조은영 글·그림)는 한국 그림책으로는 처음으로 그랑프리를 차지했고, '어느 날' (유주연 글·그림)은 2등격인 황금사과상을 받았다.

BIB(Biennial of Illustrations Bratislava)는 1967년부터 국제야동 청소년도서협의회와 유네스코 후원으로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리는 그림책 축제다. 이번에는 44개국 일러스트레이터 356명의 원화 2318점이 출품됐다.

그랑프리 받은 '달려 토토'는 경마장에 간 어린이의 눈에 비친 말들의 다양한 동작과 표정을 역동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어느 날'은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가 여백의 미와 흑백의 묘미를 완성도 높게 살려낸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달려 토토' 원화는 2013년 볼로냐 국제도서전 메인 전시장 특별전에 초대되고 볼로냐 일러스트레이션 전시 도록 표지에 실린다. BIB 2013 특별전에 도안테르센 수상작과 함께 전시된다.

▼ 도서출판 북극곰, 오디오북 무료 제공

도서출판 북극곰(대표 이순영)이 지난 8월 23일 홈페이지에서 자사에서 출간한 모든 그림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도서출판 북극곰은 또한 모든 독자들이 손쉽게 오디오 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폰 스타일로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서출판 북극곰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마치 스마트 폰의 바탕화면처럼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콘이 나열되어 있으며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그림책 '북극곰 코다'와 'Coda the Polar Bear'에는 비디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선정된 번역역도서 '이게 뭐야?'에는 표지가 두 개인 독특한 구성 때문에 생쥐 이야기 오디오 서비스와 거인 이야기 오디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제지뉴스

▼ 일본, 지진피해 제지업체들 2분기 매출 감소

지난 3월 발생한 동북지진으로 당시 피해를 입은 일본 제지회사들의 2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강도 9의 지진으로 일본 내 주요 제지사인 일본제지와 미쓰비시제지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4%와 21.3%씩 감소했다. 특히 지진 원양지인 센다이 가까이에 위치한 일본제지의 이시노마키 공장(아트지, 백상지)과 이와누마 공장(아트지, 중질지, 신문용지), 나코소 공장(NCR, 감열지) 등 일본제지의 3개 공장 미쓰비시제지의 하치노에 공장(아트지, 백상지)이 큰 피해를 입었다.

연산 240만톤 규모인 일본제지의 경우 지진발생 당시 3개 공장으로 밀려온 해일과 토사로 공장가동이 모두 중단됐고, 생산된 재고제품이 적게는 50% 많게는 100%씩 침수피해를 입었다. 그중에서도 센다이와 가장 가까운 이시노마키 공장은 9개 제지설비중 3개는 폐쇄하고 6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재가동기로 했으나 이것도

시장상황에 따라 재가동시기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제지의 하치노에 공장도 지난 6월말 현재 생산량이 지진전의 35%수준에 머무르는 등 더딘 복구상황을 보였다. 이와같은 공장가동 중단과 제품침수는 곧 2분기 매출감소로 이어져 일본제지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8.4%감소한 2502억엔을 기록했으며, 미쓰비시제지는 전년동기보다 21.3%감소한 420억엔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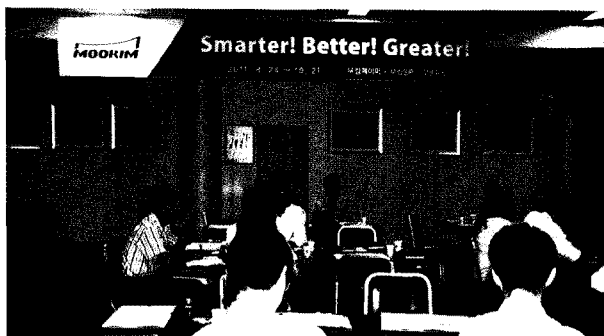
한편 국내 제지업계는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내 인쇄용지 회사들의 생산량 감소로 대일본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림은 월 평균 1천톤 수준이었던 대 일본수출량이 지진피해 직후인 4월에는 2300톤으로 증가했고, 7월에도 5000톤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4분기부터는 월 1만톤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제지업계, 수출물량 증대로 하반기 실적 개선

6월 인쇄용지는 생산과 내수판매가 전월 대비 2.3%와 3.2%로 소폭 감소한 반면 수출량은 전월과 동일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생산과 판매 모두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 생산 7.6% 내수 9.4%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출은 27.7%나 증가했다. 수출량의 이와같은 증가세는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아트지에 부과한 관세로 인한 반사이익과 일본 지진으로 대일본 수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을 성수기를 앞둔 8월말 현재 인쇄용지업계는 추석 전후로 하반기 보수작업을 계획중이며, 보수작업이 끝나는 9월 중순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달력, 다이어리, 교과서, 학습지 등 인쇄용지 시즌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무림, 영업직원 대상 '영업경쟁력 강화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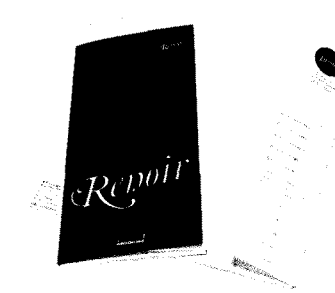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주에 걸쳐 본사 영업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경쟁력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영업직원들의 협상능력, 가치와 솔루션 영업능력, 프리젠테이션 실행능력 등 차별화된 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고객상담기술 및 솔루션 제안, 차별화 전략 및 가치영업, 세일즈협상과 프리젠테이션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 무림, 제지업계 최초 중동지역 프로모션 나서

무림(대표 김인중)은 중동지역 고객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동지역 터키 이스탄불과 두바이에서 신제품을 소개하는 프로모션을 개최했다. 행사기간 동안 총 60여개의 중동지역 고객사 및 200여명의 고객들이 참석했다. 특히, 무림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동시장을 지난 5월 출시한 일관화종이 '네오스타' 및 신제품의 전략시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무림은 지난해말 제지업계 최초로 중동 두바이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한 바 있다.

▼ 무림SP, 르노와르 미니샘플북 제작



무림SP(대표 김인중)는 최근 르노와르 미니샘플북을 제작하고 가을 성수기를 맞아 본격적인 제품홍보에 나섰다. 이번 미니샘플북은 한 손에 잡히는 경량의 핸드 샘플

북 형태로, 르노와르와 르노와르(고백색)의 주요생산인 105, 130, 160, 190, 210, 230g/m²으로 구성돼 있다. 미니샘플북은 당사 특수영업팀 및 마케팅팀을 통해 배포한다.

▼ 한솔제지 친환경 블루제품 인기

한솔제지(대표 권교택)의 친환경 인쇄용지인 블루제품이 국내 주요 기업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시에 맞춰 신차 카탈로그를, 교육전문그룹 비상교육은 현재 초등교재 전체를 한솔 친환경 용지로 제작하고 있다. 신세계도 올해 하반기부터 쿠폰북, 팸플릿에 친환경 용지를 쓸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 호평을 받고 있는 블루제품은 한솔이 지난해 7월 출시해 GR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인쇄용지다. 블루제품은 한솔의 축적된 폐지 재생기술과 특수코팅 과정 등을 거쳐 천연펄프로 만든 인쇄용지와 동등한 품질을 구현했고, 고객들의 사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제품과 동일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한솔페이퍼유통, 고객만족도조사 실시로 의견 수렴

한솔페이퍼유통(대표 박경재)은 2011년 경영방침인 '고객동반성장'의 일환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고객만족도조사는 한솔페이퍼유통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업이미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 만족/불만족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한솔페이퍼유통 고객만족도에 대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 방안 및 목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솔페이퍼유통의 관계자는 “일시적인 고객 의견 수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설문 활동 및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고객의 소리를 듣고 그에 따른 방향을 수립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솔페이퍼유통, 최초 심야재단서비스 실시

한솔페이퍼유통(대표 박경재, 구 일진페이퍼)은 10월 1일부터 총무로와 을지로 지역에 위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내 지류유통업계 최초로 심야 재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든 지류유통점이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용지발주나 재단요청을 할 수 없었던 총무로, 을지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인쇄사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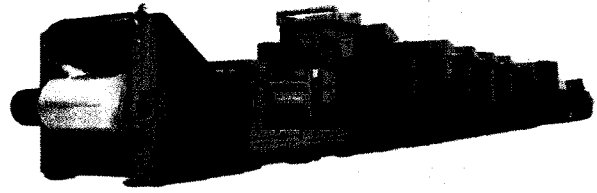
한솔페이퍼유통은 이러한 심야재단서비스 시행 및 획기적인 납기 단축을 위해 콜센터, 재단직원, 배송직원을 2교대/일로 운영, 오후 10시까지 추가 근무토록 하는 한편, 한솔제지와 아트원제지 물류센터(성북, 안양)와 한솔페이퍼유통 간 운송차량을 하루 4회 정기 운행해 실시간 재고를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전지, 국반전지, 고객 상용규격 제품 재고를 상시 확보해 납기 대응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솔페이퍼유통은 이외에도 총무로, 을지로 전담 영업팀(CMR팀) 및 통합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방문 횟수 증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해외뉴스

▼ 물라마티니, LabelExpo 2011 참가

물라마티니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LabelExpo 전시회에 참가한다. 라벨엑스포에서 물라마티니는 각기 다른 3개의 스탠드에 전시장을 마련해 520 ~ 850 mm에 이르는 라벨과 포장재 인쇄를 선보인다.



우선 Hall 7, Booth L110에서는 물라마티니가 소개하는 VSOP 프린팅 유닛을 만날 수 있다. VSOP 웹 오프셋 프린팅 프레스는 슬리브 기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빠르고 쉽게 프린팅 사이즈를 바꿀 수 있다. 이 기술은 프린트 길이를 자주 바꾸는 경우에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게다가 VSOP는 적은 비용으로 프린팅 플레이트에 소요되는 리드 타임을 현격하게 단축시키는데, 표준형의 오프셋 프린팅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플렉소 또는 그라비아 프린팅 등 다른 인쇄기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Hall12, V10 전시장(포장재 인쇄 Zone)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Trade Fair가 열린다. Trade Fair에서는 고객사들에게 웹 오프셋 프린팅이 포장재 인쇄 분야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Hall12, V10 전시장에서는 물라마티니 웹 오프셋 인쇄 장비를 사용해서 인쇄된 높은 품질의 인쇄 제품들이 전시된다.

마지막으로 Hall 5, E80 전시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포장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LabelExpo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전기 빔 경화장치(Electron-beam curing)를 사용해서 인쇄하는 먹거리 포장재다. 물라마티니는 이런 내용을 인쇄 잉크 생산업자인 Sun Chemical 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잉크 필름의 경우 경화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품질을 보이면서도 냄새는 적고, 잘 묻어나지 않는 인쇄 제품이 만들어진다. 특히 사진 인화제나 배기 오염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인쇄환경이 조성된다.

▼ 캐논USA, C5000 시리즈 CC인증 획득

캐논 USA는 image RUNNER ADVANCE C5000 시리즈 다기능 사무 시스템이 IEEE 2600.1 표준에 따르는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보안 인증체계인 CC인증(Common Criteria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EEE 2600.1 표준은 문서 보안, 운영 책임, 정보 보종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상업 정보 처리 환경으로 특징지어진 ‘운영 환경 A’에 사용된 하드 카피 장치를 위한 보호 프로파일이다. ‘운영 환경 A’에서 처리된 일반 정보는 영업 기밀, 미션-크리티컬, 또는 개인과 정부를 위한 법적 규제 고려사항에 관한 것이다.

캐논 USA 샘 요시다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는 “캐논 image RUNNER ADVANCE C5000 복합기 시리즈가 IEEE 2600.1 CC인증을 획득하게 되어 기쁘다”며 “IEEE P2600 워킹 그룹과 유관 인증에

캐논이 참가한 것은 완화 잠재력 정보와 데이터 보안 위협을 지원하는 복합 장치와 프린터에 대한 포괄적인 보안 솔루션과 기술을 제공하려는 캐논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캐논의 image RUNNER ADVANCE 장치에 사용된 일반적인 컨트롤러 아키텍처를 감안할 때, 특정 설치 및 구성 요구 사항과 함께 필요한 액세서리가 장착된 경우, image RUNNER ADVANCE C9000 PRO/C7000/8000/6000 시리즈 모델들은 또한 IEEE 2600.1 표준도 준수한다.

▼ CMYK탑재한 KODAK PROSPER S20

세계의 많은 코닥 고객들은 PROSPER S-Series Imprinting Systems으로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인쇄를 하고 있다.

CMYK를 탑재한 The PROSPER S20 Imprinting System은 쉬운 설치 옵션과 함께 웹 오프셋 프레스와 다양한 제3자 프린팅 타워를 사용하는 웹 피니싱 라인을 균일하게 통합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600 x 300dpi의 해상도에서 오프셋 프린트된 소재에 가변 데이터 추가를 가능케 해준다. 4.16 inches/10.56cm 넓이로 인쇄가 되고 페이드, 스크래치 그리고 방수를 제공하는 컬러 잉크 처리된 안료로 CMYK를 탑재한 PROSPER S20 Imprinting System은 원료처리량을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독립형 장비의 요구를 없애줄 것이다.

John Hornby (Lettershop 최고 경영자)씨는 “방대한 양의 가변 데이터를 인쇄하려면 항상 비용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CMYK를 탑재한 KODAK PROSPER S10 System은 단지 오프셋 비용에서 10~15% 증가와 가변 정보에 대한 비용 10% 증가분만 있을 뿐이다. 이 솔루션은 풀 화이트 페이퍼 솔루션보다 효율적이고 훨씬 더 경제적이다. 우리는 항상 공격적인 석판인쇄 사업을 진행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피니싱 라인을 위해 KODAK PROSPER S10 System을 설치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코닥의 월드와이드 마케팅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의 상무인 Vince Ferraro씨는 “CMYK를 탑재한 KODAK PROSPER S10 and S20 Imprinting Systems은 기존의 오프셋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는 동안 반응속도와 직거래애플리케이션으로 ROMI를 증가시키는 뛰어난 방식이다. 코닥은 최근 고부가가치의 인라인 솔루션을 전달해주는 능력을 가진 하나 뿐인 회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CMYK를 탑재한 PROSPER S20 Imprinting System의 하이브리드는 코닥의 디지털 플레이트의 오프셋 솔루션과 출력기가 쌍을 이룰 때 더 향상될 수 있다.

▼ Fenske 미디어

KODAK PROSPER 5000XL Press

상업인쇄 전문인쇄사인 Fenske Media는 최근 KODAK PROSPER

5000XL Press를 설치했다. Fenske Media사는 개인화된 소책자와 광고용 우편물 그리고 풀컬러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5000XL Press를 이용해 총비용은 낮추고 품질은 오프셋인쇄를 능가하는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다.

PROSPER 5000XL Press는 분당 650 피트(200mpm) 속도로 24.5인치(62.2cm)의 인쇄 넓이까지 완벽하게 4-over-4를 제공하는 풀컬러 인쇄기다. PROSPER 5000XL Press는 매달 1억 2천만장의 A4 또는 US 편지지의 사용률을 보이는 잉크젯 웹 프레스이다.

자동화된 Color Management와 Image Quality Management System이 장착된 PROSPER 5000XL Press는 코팅되지 않거나 코팅된 것으로 175 lpi까지 오프셋 출력물과 평방미터당45에서 300그램 범위의 광택종이 또는 30에서 200파운드까지의 텍스트 중량에 필적하는 프린트 품질을 생산해 낼 수 있다.

Fenske Media의 파트너인 Dave Fenske씨는 “PROSPER 5000XL Press가 하나 이상(엄밀히 말하면 수백만)의 뛰어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마케팅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훨씬 높은 반응 속도를 내는 데이터 처리에 따른 마케팅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Finline Printing 그룹

KODAK NEXPRESS SX Digital Press 도입

인디애나폴리스에 기반을 둔 Finline Printing Group은 오프셋 인쇄, 메일링, 고객의 주문처리를 주로 담당했으나 최근 KODAK NEXPRESS SX3300 Digital Production Color Press를 설치하고 사업영역을 개발하고 헬스케어, 금융, 고등교육, 제조업 그리고 비영리 시장에 특화함으로써 회사를 차별화시켰다.

KODAK NEXPRESS SX 플랫폼은 롱 시트(26" /660 mm) 뿐만 아니라 131ppm까지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26" /660 mm에서 롱 시트 옵션은 프린트 가능 영역을 27퍼센트나 더 넓혀준다. 더 길어진 시트의 이점은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6페이지 브로셔, 포스터, 더 큰 책 커버 그리고 다양한 포장 라벨과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가능케 해준다.

Finline사는 넓은 범위의 단기적인 프린팅, 변동되기 쉬운 재무제표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 자료들을 위해 NEXPRESS SX Digital Press를 사용한다. Finline사는 이전에 품질 요청에 대한 조합과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오프셋 인쇄기의 생산성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기존 고객들은 이제 많은 양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장하고 있는 크로스 미디어 프로젝트에서 NEXPRESS SX Press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혁신적인 5thKODAK NEXPRESS 이미징 유닛은 워터마킹, 보호코팅, 컬러 가뭇 확장, 다차원 프린팅 그리고 Light Black HD Dry Ink Solution을 가능케 해 주었다. KODAK NEXPRESS Light Black

HD Dry Ink Solution은 최상의 디테일을 유지하는 동안 더 매끄러운 스킨 톤을 만들어내는 특정 컬러의 라이트 블랙을 대체하기 위해 소유자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모든 NEXPRESS 프레스와 마찬가지로 NEXPRESS SX 플랫폼은 연속적인 생산성과 품질 관리 툴 그리고 자동화 임무와 그들의 생산 가동시간 내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사용자들을 돕는 Print Genius 기능을 가지고 있다. Print Genius 세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매일 같이 첫 번째 시트부터 마지막 시트까지 품질과 지속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과학혁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ODAK NEXPRESS Photo Platform

Print Genius를 탑재한 The NEXPRESS Photo Platform은 포토 전문 프린터, 포토 랩, 상업 프린터에 이상적인 플랫폼이다.

NEXPRESS Photo Platform은 양각인쇄, 글로스 코팅 그리고 무광 피니시와 같이 일렬로 늘어선 디지털 컷 시트에 특별한 효과를 전달해 준다. 포토북의 하드 커버와 소프트 커버, 캘린더, 인사장, 4x6 프린트 등의 사진인쇄에 우수하다. 또한 더 큰 책 커버, 포스터, 파노라마 인쇄 또는 26인치 또는 660mm까지 인쇄할 수 있다.

디지털인쇄사인 Mimeo의 경영전략부서 부사장 Charlie Corr씨는 “NEXPRESS Photo Platform은 코닥이 만든 특화된 디지털 프레스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뛰어난 프린트 품질을 가지고 있다. NEXPRESS Photo Platform은 또한 더 길어진 시트 사이즈와 가동 시간을 지닌 주목할 만한 손가치를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KODAK NEXPRESS Photo Platform은 포토 상업 워크플로의 계절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업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프레스 중 하나로 최상의 이미지 프로세싱 생산성을 수행하는 KODAK NEXPRESS VI Photo Front End를 포함한다.

차세대 KODAK VERSAMARK Printing System 출시

코닥은 업계에서 가장 작은 풋프린트와 혁신적인 싱글 엔진 디자인을 갖춘 차세대 VERSAMARK Printing System을 소개했다.

KODAK VERSAMARK Printing Systems는 컴팩트하고, 고속 모노크롬, 싱글 엔진의 양방향 디자인과 코닥의 차세대 Drop on Demand (DOD) 프린트헤드를 갖춘 컬러 웹 프레스다.

유연성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VERSAMARK Printing Systems은 거래 문서와 광고용 메일 같은 복잡한 가변 데이터 프린트 애플리케이션을 다루는데 적합하다. VERSAMARK Printing Systems은 오프셋인쇄나 마스터인쇄 다음으로 오프라인상에서 가변데이터를 임프린팅하는 두 단계를 줄여 생산 처리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비용과 왕복 시간을 감소시킨다.

새로운 VERSAMARK Printing Systems은 모노크롬 1-up simplex에서 5/4, and 2 up duplex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 속도는 600 x 600 dpi해상도로 분당 246에서 492피트까지 가능하다.

새로운 VERSAMARK Systems은 코닥 포트폴리오내 KODAK PROSPER Platform의 더 큰 수용 능력을 보완하면서 업무거래, 광고용 메일 그리고 단기용 신문 애플리케이션에 그 타겟을 맞추고 있다.

스탈폴더 KH 82, 빨라진 작업준비시간 보장



하이델베르크사의 컴비네이션 접지기인 KH 82는 자동으로 조절되는 신제품으로 가로 접지 유니트, 자동 컴비네이션 발채, 대문접지 장치 및 글루잉 장치들을 장착하고 있다. 시간당 30,000 사이클의 고성능으로 2층의 스택킹이 가능한 트윈스택커 TSH 70을 사용함으로써 논스톱 가동이 가능하다.

KH 82는 2008년 드루파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100여대가 주요 선진국들에 공급되었다. 스탈폴더 KH 82 콤비 폴더는 자동화가 뛰어나 최소의 작업준비시간과 분당 230미터라는 생산 속도로 비용 효과적인 제품이다.

특히 작업 폭이 66과 82cm인 자동화된 가로-접지 유니트가 주목할 만한데 서보-파워 접지 칼은 시간당 최고 30,000 사이클이 가능하다. 서보 드라이브는 메인 드라이브와는 독립적으로 칼 속도를 조절이 가능하다. 칼은 조그 휠(전자적 핸드휠)을 사용해 수동으로 움직여질 수 있어 슈트 인피드가 centralized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높이와 각도 등 모든 칼 설정은 저장할 수 있어 되어 반복 작업할 경우 용이하다. 가로접지 평형접지 유니트의 리프트 키트와 가로접지 유니트의 슬리터 샤프트 캐리지는 슬리터 샤프트에 최적이다.

스탈폴더 KH 66과 KH 82는 대량의 상업 인쇄물의 가장 일반적인 규격을 다룰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프리넥 워크플로를 통해 통합되어 워크플로와 자동화된 접지기의 결합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특징을 가진 스탈폴더 KH 82를 최근 리히텐슈타인에 위치한 Gutenberg AG사가 도입했는데, GutenbergAG사는 스피드 마스터 SM 74를 이용해 인쇄를 하고 있다. 접지에서 82cm 폭의 인피드가 가능하여 용지는 오블롱 용지 급지로 처리될 수 있어 이송 방향과 2-up 이상의 작업을 처리하는데 유연성을 제공한다.

▼ 플라 Dienst Verpackungstechnik 인수



세계적인 고속재난시스템 공급사인 플라 사는 지난 수개월의 준비를 통해 독일 호프하임에 위치한 Dienst Verpackungstechnik사와 세일즈 계약을 맺고 인수를 마무리했다.

Dienst 사는 상품의 자동 패키징을 위한 기계와 시스템을 생산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험과 지식이 많은 기업으로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 명성을 누려왔다.

Dienst Verpackungstechnik사는

호프하임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 접근성으로 양 회사가 빠르고 유연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되고 있다.

플라사의 관계자는 “이번 Dienst 사 인수를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사는 또한 유사한 프로세스와 구조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이델베르크

GraphExpo서 웹투프린트 솔루션 공개

지난 9월 11일에서 14일까지 시카고에서 개최된 GraphExpo에서 하이델베르크 사는 프리넥 웹투프린트 매니저의 형태로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웹투프린트(W2P)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 솔루션은 중대형 규모의 인쇄사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고객들과 인터페이스 하는 것을 돕는 B2B 어플리케이션이다. 물론 B2C를 위한 개방형 인쇄사에도 적합하다.

프리넥 웹투프린트 매니저는 미국에 위치한 W2P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인 Pageflex와 공동 개발되었다. Pageflex사는 IPEX 2010 이후 하이델베르크 W2P 파트너 프로그램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사용자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프리넥 웹투프린트 매니저는 사용자에게 17개 이상의 온라인 스텝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승인 절차를 갖춘 오더 프로세스, 쇼핑 카트, 사용자 관리, 발송 및 지불 등과 같은 전형적 기능들을 갖춘다. 고객 포털은 데이터 처리 및 온라인상 편집도 가능하다. 솔루션은 지불 시스템, 배송 시스템 등과 같은 제3의 공급업체의 시스템과도 인터페이스 가능하다. 프리넥 웹투프린트 매니저는 프리그래밍 노하우가 필요치 않는 직관적 구동 방식의 표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다. 포털은 고객 요구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프리넥 웹 투 프린트 매니저는 B2B 활동에 주로 웹투프린트 솔루션을 사용하는데 관심있는 인쇄 회사를 위해 완벽한 솔루션이다. 또한 B2C 어플리케이션과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지원한다.

한편 프리넥 웹 투 프린트 매니저는 GraphExpo에서 미국과 유럽에 소개되며, 드루파 2012을 계기로 전세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뉴스

▼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에 100% 공제 적용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재산의 100%가 공제된다. 공제한도도 △10년 이상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의 40%에 대해 60억~100억원 범위 안에서만 공제를 해왔다. 다만 상속 공제의 전제가 되는 고용 유지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앞으로는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도 10년간 고용 인력을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 물론 중견기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속 후 10년간 매년 평균 2%씩 고용을 늘려야 한다.

▼ 삼성경제연, 중소기업에 유료콘텐츠 무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삼성경제연구소(SERI)와 ‘지식정보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SERI는 중소기업 임직원 10만명에게 유료 지식 콘텐츠인 ‘세리프로(SERIPro)’를 무료 제공한다. 세리프로 이용회비가 연 4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4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셈이다.

이번 협약은 예산 및 인식 부족으로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업무 능력을 개발하는데 소홀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직원들의 업무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은 지난 2009년 전체 중소기업의 27.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교육훈련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임직원들도 SERI 자료를 통해 다양한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SERI와의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영 트렌드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보, 유망 중소기업에 최저 보증료를 혜택

신용보증기금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을 오는 2015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신보스타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올해말까지 20개사를 선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매년 20개사를 선정해 6년 동안 최저 보증료를(0.5%) 혜택과 유동회사보증 우선 편입, 각종 컨설팅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매출액의 10%이상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비상장 외감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경과, 자기자본 30억원 및 매출액 200억원 이상, 2개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으로 신보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2’등급 이상인 기업이다.☺